

# 전통문화예술과 떠나는

# 한 여름밤의 코로나19 치유야행

광주문화재단 '2020 휘영청 칠석이네'...30일까지 전통문화관  
전통악가부·평양검무·전시·무형문화재 붓 이야기 등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채로운 전통문화예술로 치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문화재단이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 8월 한 달간 '한여름밤 코로나19 치유야행'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를 비롯해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전통 악가부, 평양검무 등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전통문화관 곳곳에는 '휘영청 칠석이네'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된다. 솟대문과 너털마당 주변에서는 칠석 등, 파고라의 풍경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솟대문 앞에는 관람객 누구나 견우와 직녀가 되어볼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한다.

14일 오후 7시에는 남도음악을 근간으로 전통 악가부를 다채롭게 구성한 '흥겨워라 남도풍류'가 열리며, 15

일에는 12현 가야금과 25현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로 국악의 깊이를 더해주는 가야금양상불 휘현이 무대를 장식한다. 16일에는 문상호 필장(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 제작한 붓 작품 전시와 함께 이윤선 박사의 '칠월칠석과 붓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오는 21일에는 신진국악팀 OLA의 공연이 열리며, 22일에는 (사)평양검무보존회의 다채로운 검무공연이 펼쳐진다. 평양의 대표춤으로 고고한 여인의 모습을 표출하는 '평양살풀이', 장단의 변화에 따라 대삼소삼을 표현하는 '평양남무' 등 북한춤들이 관객과 만난다.

23일에는 이예섭 남도의례음식장(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칠월칠석 음식작품 전시와 세시음식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후 7시에는 김선제(아쟁), 유소희(거문고), 김선임(해금), 김산옥(소리), 이왕재(타악)

등 중견 연주자들의 '둘이 함께 어허둥둥'이 이어진다.

또, 신민속악회 바다는 '동행' (28일) 무대에서 지신 밭기를 편곡한 '가약지신', 진도씻김굿과 서양음악 '사콘느'가 어우러진 '공존', 서도민요 '난봉가'를 재해석한 '무원' 등을 선보인다. 29일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이영애 초청공연이 열린다.

8월의 마지막 행사는 30일 열리는 전통성년례다. 관례-계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고유제-관례-계례-명자례-조례' 등 전통성년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서영무 용단이 우리 역사 속에 거행된 다양한 의식들을 전통춤과 현대춤으로 접목시킨 창작무용 '제(祭)'를 선보이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무료관람.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2020 지구와 미술관' 전.

##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

이강하미술관 '2020 지구와 미술관' 전 28일까지

요즘처럼 기후와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때도 드문 것 같다. 이강하미술관의 기획전 '2020 Earth&Museum 지구와 미술관' (28일)에서 만나는 작품을 역시 이런 고민과 생각들이 배어 있다.

'지구를 생각하는 예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 상황과 기후변화의 시대를 마주한 상황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환경, 나와 사회에 대한 환경, 예술가의 시대적 관계 환경 등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함께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또 지구를 생각하며 '예술과 예술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미술관측은 전시 안내 팸플릿을 유유히 재생 용지로 제작해 작은 환경 사랑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5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사진과 회화가 접목된 독특한 작품을 제작하는 박인선 작가는 고(故) 이강하 작가의 '맥(脈)' 연작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물결'과 '맥'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도 바다와 나무 등지에서 찍은 사진을 주 모티브로 삼아서 작업한 이번 작품은 기하학적이고 미로 같은 물의 흐름이 만든 뒤틀어진 자연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버린 고(故) 작가가 조작성 세계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인간들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김은경 작가는 평면과 영상 작업을 함께 내놓았다. 작가가 주목하는 건 우리가 무의식중에 지나치는 '돌'이다. 돌에 눈코입을 그려 넣고 작가의 감정을 이입한 평면, 조각 작업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스톱에 니메이션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직접 손으로 빛을 칠할 수 있는 2분 분



박인선 작 '물결'

량의 작품은 현재의 나와, 수십년 뒤의 내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담긴 신문, 잡지 이미지 등을 콜라주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최요안 작가는 수많은 이미지를 찾아 붙인 'The Penomenal World' 등의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풍경을 보여주며 서영기 작가는 광활한 우주 속 작은 스텔라들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 다시 흩어지는 이미지를 대형 평면회화 작품으로 풀어냈다.

개인적인 사건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소재를 다양한 작업으로 표현하는 이연숙 작가는 3년전 자신의 작업실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기억과 1980년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낸 후 자신과 시대·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점토로 만든 상들리에와 뒤집힌 인간 조각상의 모습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이 8월 한달간 전통문화관에서 전통예술공연과 전시 등을 만날 수 있는 '한여름밤의 코로나19 치유야행'을 진행한다. 사진은 서영무용단 공연모습.

## '지적 공감, 서양미술사' 국립광주박물관대학 9월 개강

132명 선착순 모집

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융합 문화 강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사)국립광주박물관회(회장 이병희)와 공동으로 제32기 광주박물관대학(박물관대학)을 재개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당초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연기됐다 하반기에 다시 시작했다. '지적 공감, 서양미술사'라는 주제로 고대부터 18세기까지 미술을 다루며 9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먼저 첫 강좌(9월 16일)는 김영나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대 문명을 찾아서-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강연한다. 9월 23일에는 조은정 목

포대 미술학과 교수가 '서양 문명과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을, 10월 7일에는 조수정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초기 그리스도교와 비잔틴미술'을 강의한다.

이어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는 '고딕 성당-빛으로 짓다' (10월 14일)를 이야기하며 황병하 조선대 아랍어과 교수는 '유럽에 영향 끼친 이슬람 문화와 예술의 특징' (10월 21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은기 목원대 명예교수이자 서양미술사학회 회장은 '중세 11-14세기의 그리스도교 미술' (10월 28일)을 강의하며 박정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회화와 조각' (11월 4일)을 강연한다.

순수연 목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북유럽 르네상스의 미술' (11월 11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며 고고미술연구소 이사장인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은 '피렌체의 르네상스' (11월 18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김영나 교수 박정호 교수 조현중 전 관장

또한 노성두 인문학습원 교장은 '바로크 미술' (11월 25일)을 모티브로 강의를 펼치고 이화진 한국항공대 인문자연학부 강사는 '귀족들의 향연과 혁명의 시대: 18세기 로코코 미술' (12월 2일)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 19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32명이며, 누리집 접수 후 계좌입금하면 된다. 수강료는 12만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프린지페스티벌 공연작 모집...문화재단 15일까지

거리예술 활성화와 브랜드 축제에 기여할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공연작품을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2020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서 선보일 공연작품을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프린지페스티벌은 '프린지페스티벌', '빛고을프린지투어',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로 구성된다. 먼저 '프린지페스티벌' (9월-11월 토요일) 5·18민주광장에서 8회, '빛고을프린지투어' (9월-11월 금요일)는 광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8회,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 (10월 중 3일간)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프린지페스티벌·빛고을프린지투어' 분야와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 분야 등 2개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퍼포먼스·마임·음악·거리극·무용 등 장르와 무관하게 시연 가능한 작품을 모집한다.

'프린지페스티벌·빛고을프린지투어'는 10·30분 내외로 구성된 거리공연 작품을 다수 선정할 계획이며 '광주국제거리예술축제'는 전문적인 거리예술 작품을 10개 내외 선정할 예정이다. 공연작품은 예술·작품성·실험성 등을 심사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기회를 잃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223-04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